

편집자의 말/ 이 글은 목회전문월간지 [목회와신학] 2002년 7월호 에 실린 것으로서 [목회와신학]의 허락을 받아 게재합니다 (<http://www.durano.com/moksin>)

## 목회의 지름길을 찾지 말고 정도를 걸어가십시오

강준민 목사 / LA동양선교교회 담임목사 / 2002. 7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그러나 목회현장은 가혹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목회현장은 냉정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경쟁이 없습니다. 그러나 목회현장에는 심각한 경쟁이 있습니다. 하나님나라에는 싸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목회현장에는 살벌한 싸움이 있습니다. 생존경쟁이라는 인생의 현실이 목회현장에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목회 현장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준비되지 않은 목회자는 그 값을 철저히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쓰실 수가 없습니다. 기회를 주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실 뿐만 아니라 준비된 것만큼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인간은 준비합니다. 하나님의 기회와 인간의 준비가 만나는 곳에 목회의 승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잘 준비된 자에게 더 풍성한 기회를 주십니다. 아무리 존재의 넉넉함을 추구하고, 영성의 고상함과 높은 도덕적 가치를 추구해도 실력이 없으면 무력해 지는 것이 목회현장입니다. 제가 거듭해서 강조하는 것은 균형입니다. 목회자는 깊은 영성과 함께 실력을 겸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목회의 실력은 세상의 실력과 다릅니다. 목회의 실력은 영적 지식을 쌓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달하는 것입니다. 목회의 실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항상 받는 것입니다. 목회의 실력은 영력을 쌓는 것입니다. 목회의 실력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목회의 실력은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하는 능력입니다. 목회의 실력은 인격입니다. 사람을 품는 고상한 성품입니다.

목회의 성공은 세상의 성공과 다릅니다. 목회의 성공은 잃어버린 양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긍휼을 가지고 양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양들을 자기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로 키우는 것입니다. 목회의 성공은 성실에 있습니다. 마음에 성실함과 작은 일에 충성하는데 있습니다. 성공적인 인물이 되기보다는 가치 있는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목회의 기술은 세상의 기술과 다릅니다. 목회의 기술은 머리를 잘 쓰는 것을 넘어서 마음을 잘 쓰는 것입니다. 지식과 정보에 능통하는 것을 넘어서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일을 잘하는 것보다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사람을 잘 움직이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잘 움직이는 것입니다. 인간의 꾀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사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기교에 정통한 자가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에 정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실력을 쌓아야 합니다. 실력은 자신을 늘 준비함으로 쌓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 혁명을 추구하고, 자기 진보를 추구함으로 실력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가 경계해야 할 것은 조급함과 게으름입니다. 모든 범죄와 모든 실수가 바로 이 둘에서 나옵니다.

다. 조급함과 게으름은 준비되지 않은 목회자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의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을 깊이 함께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철저히 준비한 후에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역현장에서 조급해 하지 않으셨습니다. 초조해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은 철저히 준비된 후에 사역에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철저한 준비는 모든 것을 다 알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철저한 준비는 기본기에 충실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본기를 잘 익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학습의 원리를 터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평생학습자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목회자로서 철저한 준비의 모범을 보여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기본기에 충실하셨습니다. 성경암송, 성경묵상, 성경통달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는 일에 잘 준비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연단된 지성을 소유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거룩한 습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질문할 줄 아셨고, 질문에 답할 줄 아셨습니다. 필요하다면 논쟁에 응하셨고, 논쟁을 하실 때면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수사학의 원리를 통해 논쟁을 승리로 이끄셨습니다. 예수님은 인생을 아셨습니다. 인생의 사계절을 아셨고, 인생의 흐름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아셨습니다. 인간의 죄성을, 그리고 가능성을 아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아셨고,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본질을 이해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법을 아셨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법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움직이는 것은 논리를 넘어선 감동임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날카로운 지성만이 아니라 풍부한 가슴을 개발하셨습니다. 토마스 칼라일은 “머리가 알아내기 전에 늘 먼저 보는 것은 가슴이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머리보다 가슴이 더욱 민감함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의 감동을 넘어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움직이셨고, 가슴에 넘치는 진리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준비하신 것처럼 준비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전인적인 삶의 기술을 본받아야 합니다. 사람을 대하시고, 일을 성취하시는 사역의 원리를 터득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잘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하고 일하고, 일하면서 계속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작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최선을 다해 일하십시오. 그동안 준비했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일하십시오. 동시에 지속적으로 자신의 성장에 투자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자신의 성장에 투자하는 사람에게서 밝은 미래가 있습니다. 사역자의 자신에 대한 투자는 미래 사역의 깊이를 결정합니다. 결정하기에 따라 미래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사역을 할 수도 있고, 쫓기고 쫓기는 초조한 미래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한 시대를 복음 사역에 헌신한 빌리 그래함 목사님의 고백을 기억해야 합니다. 일찍이 영국의 성직자들의 모임에서 자신이 다시 사역을 한다면 두 가지를 바꾸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첫째, 지금까지 자신이 연구한 것보다 세 배나 더 연구할 것이며 떠맡는 일을 줄일 것이다. 둘째, 기도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겠다. 저는 목회 현장에서 사역하고, 설교를 하면서 갈수록 준비의 중요성을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조급함을 경계하십시오. 초조함을 정복하십시오. 조급함과 초조함은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지혜와 훈련으로 정복할 수 있습니다. 쉬운 길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잘 준비된 사역자의 미래는 아름답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인생에서 거둘 것은 엉겁퀴뿐입니다. 철저한

준비라는 고통을 먼저 선택하고 즐거움을 나중에 누리십시오. 목회에 지름길은 없습니다. 다만 정도만 있을 뿐입니다. 목회의 지름길을 찾지 말고 정도를 걸어가십시오. 작은 물방울이 모여 바위를 뚫는 것처럼 매일 자신을 연마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면서 새롭게 태어나십시오. 새롭게 깨달은 진리가 없이는 잠자리에 들지 마십시오. 기회가 주어지지 않음을 한탄하지 말고, 준비되지 않음을 한탄하십시오. 그리고 오늘이야말로 새롭게 준비해야 할 날임을 믿으십시오.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내일 죽을 것처럼 사랑하며 사십시오. 루이 마무르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겨지는 순간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 때가 곧 시작입니다.